

# Style

조선일보

APRIL 2021  
vol.219



*Cartier*



# PIAGET

POSSESSION COLLECTION

Galleria East - Shinsegae Gangnam - Lotte Avenuel Main - Lotte Avenuel Worldtower -  
Hyundai Main - Hyundai Coex - Hyundai Pangyo - Lotte Busan Main



12



15

18



카르티에의 대표작인 아이코닉 주얼리 컬렉션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팬더 드 카르티에. 아프리카 여행 중 먹이를 찾아 헤메는 팬더의 모습에 매료된 루이 카르티에가 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면서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본래 야생적 이미지의 팬더는 카르티에를 만나 카리스마와 인가나, 사랑스럽거나, 때로는 장난스러운 발색 조 같은 매력을 지니며 강렬한 감정 에너지를 발산한다. 표지 속 제품은 플래타넘에 총 12.73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74개와 에메랄드, 오파스를 세팅한 브레이슬릿이다. 문의 1566-727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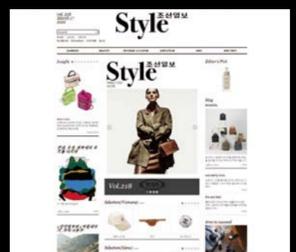
- 08 **SELECTION FOR HER** 생동하는 봄을 그리는 보태니컬 패션 판타지.
- 10 **SELECTION FOR HIM** 일상에 활력을 선사하는 패션 어드벤처.
- 12 **하마터면 몰릴 뻔했던 우리들의 소중한 '모던 타임스'** 요즘 덕수궁의 한 미술 전시 공간에서는 저문 낯설고도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입구 쪽에서부터 옛날 신문을 쌓아놓은 듯한 종이 인싸들이 놓인 산본들이 즐지어 늘어서 있고, 안쪽에는 역시 해묵은 사적 이든 우아한 우리 기둥들이 서 있는데, 은은한 불빛을 내는 독서들 덕분에 흡사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사선을 잡아끄는 건 관람객들의 면모. 언뜻 봐도 2030세대가 적잖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씩씩 지나치지 않고 조심스레, 그리고 꽤나 천천히 '문헌'을 들여다본다. 울 상반기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심 차게 내놓은 기획전 (미술이 문화를 만났을 때 제2전시실, 지상층)의 미술관 현장이다. 주로 1920~40년대 신문소설의 삽화, 그리고 근대기의 책들을 모아놓은 곳. 고루하게 느껴질 법도 한 1세기 전 글·그림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일까?
- 15 **JOY OF COLORS**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이쯤만 들어두기가 풍긋할 만큼 드높은 명성을 지닌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사' 형식으로 접하기 쉽지 않았던 독일 출신의 가장 리히터가 빛어내는 '색의 연금술'이 서울 하늘을 수놓고 있다.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에서 오는 7월 18일까지 열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 4900가지 색채전, 지친 영혼에 즐거운 침묵>을 선사하는 이 전시는 '작지만 큰'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 16 **WOMAN IN GOLD** 유려한 곡선과 우아한 골드빛이 그려는 로맨틱 타임피스.
- 17 **MODERN PEARL** 우아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캔템퍼러리 진주 주얼리 컬렉션.
- 18 **DOUBLE PLAY** 같은 듯 다른 느낌.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는 건 언제나 즐겁다. 이번 시즌 새로운 백들과 함께한 트윈 컷.
- 26 **SHOE TIME** 봄바람을 불어넣은 듯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상으로 물든 2021 S/S 슈즈 트렌드.
- 28 **CODE TRENCH** 남인이 갖든 계절, 봄. 트렌치코트가 빛을 발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계절이 있을까?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가 담긴 아름답고 멋진 트렌치코트의 세계.
- 31 **EDITOR'S PICK** 최적의 뷰티 컨디션을 위한 필수 아이템 13.

# Style 조선일보

Issue.219 April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com



## CLASSIC TIME

블랙 솔리드 실버 다이얼과 핑크 골드 케이스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다트그래프 인/아웃 워치. 매끈한 블랙 다이얼 위 2개의 세컨드 다이얼과 12시 방향에 위치한 직사각형 날짜창이 환상적인 균형을 이룬다. 정밀 마닛 카운터, 플라잉백 기능을 갖췄다. 최대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데, 6시 방향에 자리한 핑크 골드의 화살 모양 인디케이터가 레드 존으로 들어가 남은 동력을 표시해준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한 케이스 백을 통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브먼트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1억2백20만원 **링에 온트 차네**. 문의 02-6905-3326



## AMAZING GREEN

이미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채굴이 시작되었고, 클레오파트라 광산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스톤. 에메랄드. 영롱한 그린 컬러는 자연 고유의 재능력을 상징한다. (유류터 시계 방향으로) **가르다에 칼링트리 드 가르다에 링** 조화로운 인트레이스 곡선이 섬세한 울림 효과를 내며 에메랄드를 완벽하게 해준다. 18K 화이트 골드 에메랄드, 블랙 레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매치했다. 문의 1566-7277 **타파니 에메랄드 더블 로우 솔리드 오브리넷 리넨트** 클래식 핑크 골드 에메랄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를 매치한 네크리스. 문의 02-6250-8620 **파피 라임라이트 칼렉션 트레저 링** 18K 화이트 골드에 약 1.69카트의 콜롬비아산 에메랄드와 20개의 마카즈 컷, 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의 02-3479-180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장미윤**

## 콜로세움을 담다

불가리아의 2021년 비제료원의 소재품 중 비제료원 풀 블랙 매트는 유광 세라믹에 한 번 더 정교한 가공을 더해 매트한 세라믹을 구현했다. 원형극장인 로마 콜로세움에서 영감받아 성별을 뛰어넘는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완성한 이 컬렉션은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및 3 밴드 링으로 출시한다. 문의 02-2056-0170



## DEAR ALL WOMEN

20세기 초 프랑스의 상류층 패션 트렌드를 이끌었던 디자이너 폴 뵘아레(Paul Poiret), 그 헤리티지를 재해석한 오토 쿠튀르 뷰티 브랜드, 뵘아레(POIRET)가 론칭한다. 의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여성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저명한 제조사와 협력해 총 20여 개의 스카커 제품과 90여 개의 메이크업 제품을 선보이는데, 무엇보다 수목리메, 안슬리프트, 로브 등 세 가지 라인으로 선보이는 스카커에는 각각 재생, 탄력, 영양 보습에 특화되었다. 그중 뵘아레의 모든 스카커 라인과 함께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인퓨저용 데네르지는 피부 에너지를 모두 갖춰주는 제품 콘셉트처럼 피부 본연의 힘을 도울려주는 에너지 인형상 제품이다. 40ml 23만원. 문의 1644-4490

## UNIQUE ONE

살명을 보지 않으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쏭달쏭하다. 케이스 디자인부터 존재감 있는 유니크한 코즈메틱. (왼쪽부터) 슈즈인클루아 색사한 케이스가 사선을 사로잡는다. 올 하반기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이는 린스틱. 3.8g, 13만원 **크리스찬 루부앵**. 문의 080-363-5454. 유기적인 셀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감각적인 패키지와 인하우스 조향사가 직접 디자인한 어덜트 기지 향이 만년 핸드 케어 제품. **더셀 퍼뮤 핸드 미니 사이즈 15ml, 1만4천원 탬버린즈**. 문의 1644-1246. 시간적으로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구상한 메이크업 라인 바이레도 X 이시타야 프렌치. 그중 린스틱은 세틴과 매트, 두 가지 파우더로 선보인다. 3g, 6만7천원 **바이레도**. 문의 02-3479-168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장미윤**

## INSIGHT

편입부가 엄청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탈리아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장미 정원

장미가 만발한 싱그러운 정원을 파키지에 담아 한정으로 선보이는 제품. 장미 꽃잎처럼 부드러운 실크 텍스처가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부여하는데, 고유의 메디테라네안 클로우 콤플렉스를 함유해 자연스러운 유폴광을 얻을 수 있다. 미니 브러시를 내장해 실용적이고, 휴대도 간편하다. 오직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러브 콜렉터블리쉬 오브 로즈 리미티드 에디션 5g 6만7천원 **돌체앤가바나 뷰티**. 문의 080-564-7700



## MATCH POINT

올봄 마스트 해브 액세서리, 벨트 (왼쪽부터) 싱그러운 그린 색조가 돋보이는 아이템. 시그니처인 간지니 메탈 장식을 전면에 새겨 상징적인 면모를 강조했다. 카브 스킨 더블 간지니 라바세를 벨트 57만원 **살비토레 파란카모**. 문의 02-3430-7854 데님 소재에 클래식 CD 메탈 로고 장식을 더한 내이비 콜로케 데님 이펙트 코튼 더블 벨트 가격 미정 **더울**. 문의 02-3480-0104. 골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연슬 송이가지족 벨트 2백30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텐 칼라와 골드 조합이 첫스러운 T 타원리스 벨트 60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아유미**



## 경쾌한 발걸음

신뜻한 멜로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부드러운 새틴 소재와 안장감 있는 3.5cm 높이의 플랫폼이 특징으로, 인솔에는 폭신한 패딩을 넣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발등에는 아이코닉한 트레비비에 스트라스 버클 장식을 더했다. 비비에 슬라이드 스트라스 물 1백36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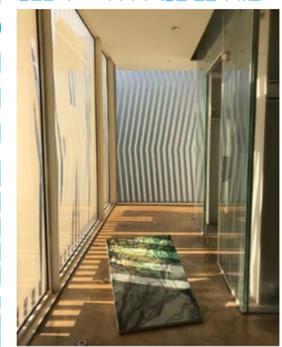
## 숫자로 얘기해요

1955년 2월 가브리엘 샤넬이 구상한 2.55 백을 재해석한 11.12 백. 더블 C 로고를 적용한 잠금장치, 레디와 함께 여운 메탈 체인, 그리고 다이아몬드 링링 패턴이 백의 보디 전체를 뒤덮고 있다. 램 스킨과 캐비아라고 불리는 그레인드 카프 스킨, 그리고 레디투웨어에서 사용하는 자지, 트위드, 실크, 벨벳, 데님 등 여러 소재를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시대를 초월한 절대 불변의 순수함으로 현대성을 잃지 않았다. 문의 080-200-2700, chanel.com



## EXHIBITION

동시대의 철교 재능 있는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온 송은 아트스페이스가 이들이 창당한 시도로 저마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프로젝트 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가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공간을 점유하는 <Artists Take-Over> 시리즈. 그간 송은문화재단의 전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 중 공부를 통해 선정된 12명이 3부에 걸쳐 각각의 전시를 꾸리게 된다. 내용과 형식에 제약을 두지 않은 채 4개의 공간으로 나뉜 전시장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우는 것. 지난 3월 10일 막을 올린 1부에서는 가민정, 김지선, 정소영, 최성민 작가가 각각의 개인전을 시작했고 4월 10일 까지, 2부는 영자혜, 유영진, 이병찬, 전민혁(4월 21일 ~5월 22일), 3부는 신정국, 오연진, 이은우, 장지현(6월 2일~7월 3일)이 참여한다. 송은 아트스페이스, 그리고 신진 작가를 위한 또 다른 전시 공간인 송은 아트큐브는 올해 말 세계적인 건축가 루오 헤이초크 앤드 드 위론(Hidm)이 설계한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있기에 그동안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 전시는 더욱 뜻깊은 듯하다.





조개 문양이 포인트  
액세서리 30만 원 구찌.

아세티트  
스퀘어 프레임  
레오파드 선글라스  
29만 2천 원  
플러시 바이 나비 by  
룩스타카.

아르메티트 유한형  
아르메티트 에티 아구이

메리사 주르바인  
황금 29만 원 플러시 바이 나비

메리사 주르바인  
세팅 미니 클러처,  
11x9cm,  
2백 14만 원  
로저 비비에.

메릴라 레진  
스트라스 소재를  
사랑스럽게 재탄생시킨  
플로럴 이어링  
가격 미정 샤넬.

아르메티트 유한형  
2백 97만 원 로저 비비에

# for her Selection

생동하는 봄을 그리는 보태니컬 패션 판타지.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인텐스 컬러 나노  
바게트 1백만 원 샤넬.

부드러운 영사 가죽 플랫 슈즈  
89만 원 샬비토레 페라가모.

실크 트윙 디올  
폼미처 스카프  
31만 원 디올.

데이 지 스타  
이어링 1.485만 원  
스외로브스키.

피사롤리아 플러시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구찌 02-3452-1921 룩스타카 02-501-4436 샤넬 080-200-270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로에베 02-6905-3470  
펜디 02-514-0652 샬비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스외로브스키 070-4771-7592 문진 02-3479-1940  
에르메스 02-542-6622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79-1804  
디올 02-3480-0104

가볍고 실용적인 라틴 스타즈 2백 97만 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655 FIFTH AVENUE AT 52nd STREET BROOKFIELD PLACE AMERICANA MANHASSET THE MALL AT SHORTHILLS BLOOMINGDALE'S AT 69th STREET GARDEN STATE PLAZA THE SHOPS AT RIVERSIDE 866-FERRAGAMO



SHOT AUGUST 2020 IN MILAN  
BY LUCA GUADAGNINO  
STARRING MARIACARLA BOSCONO  
FERRAGAMO.COM

Salvatore Ferraga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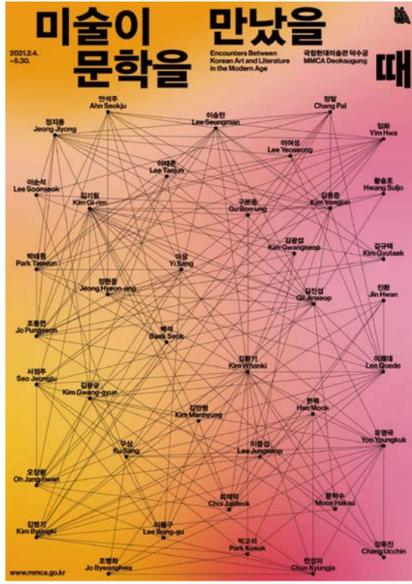
for him  
**Selection**

일상에 활력을 선사하는 패션 어드벤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 구찌 02-3452-1921
- 에르메스 02-542-6622
- 폭스타가 02-501-4436
- 크리스찬 루부앵 02-6905-3795
- MCM 02-540-1404
-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 디올 맨 02-3480-0104
- 자방시 02-546-2790
- JW 앤더슨 1588-3717
- 셀만스 02-6905-3736
- 폴 스티스 02-6905-3456
- 겐조 02-3479-6270



*Celebrating 20 years of style and music.*  
**john varvatos**  
the new fragrance for men



## 미술과 문학의 우정사

# 하마터면 문힐 뻔했던 우리들의 소중한 '모던 타임스'

요즘 덕수궁의 한 미술 전시 공간에서는 자못 낮설고도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입구 쪽에서부터 옛날 신문을 뺏아놓은 듯한 종이 인쇄물이 놓인 선반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고, 안쪽에는 역시 해묵은 서적이 든 우아한 유리 기둥들이 서 있는데, 은은한 불빛을 내는 독서등 덕분에 흡사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시선을 잡아끄는 건 관람객들의 면모. 언뜻 봐도 2030세대가 적잖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쓱쓱 지나치지 않고 조심스레, 그리고 꽤나 찬찬히 '문학'을 들여다본다. 올 상반기 국립현대미술관이 야심 차게 내놓은 기획전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제2전시실, '지상(紙上)의 미술관' 현상이다. 주로 1920~40년대 신문소설의 삽화, 그리고 근대기의 책들을 모아놓은 곳. 고루하게 느껴질 법도 한 1세기 전 글·그림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일까?

도움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권영복(문학평론가, 평론대행)과 동북대문학사상연구소(학부 교수)

사실 꽤 오랫동안 우리의 20세기 전반부는 그저 어둡고 칙칙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찬란하진 않다고 여겼다. 변명 같지만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겪는 비통한 민족 수난의 근대 역사가 뇌리에 박혀 있으니, 암울한 나날이었다고 무어라 짐작할 여지는 충분했다. 그래서 '근대의 황금기'라고 하면 '빛의 도시'로 불리던 파리를 주로 들여다봤다. 문화 예술을 눈부시게 꽃피운 '벨 에포크' 시대(1890~1914)를 누리고 이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시대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저마다의 창의성을 뽐낸 '에콜 드 파리(Ecole de Paris)' 같은 연대가 펼쳐지는 등 애수가 어려 있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던 도시 아닌가. 얼마 전 막을 내린 마야미뮤지엄의 《마티스 특별전: 재즈와 연극》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 당시 프랑스는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다국적 예술가들이 파리 와 남프랑스를 오가면서 앞다퉈 새로운 시도를 일삼고 문학, 미술, 영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채로운 협업을 펼친, 실로 역동적인 무대였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근대의 암흑기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이 고마운 사실을 깨닫거나 상기

하기에 당시의 글과 그림이 함께 빛어내는 협주만큼 강한 매력을 뽐어내는 매개체가 있을까.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문예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국립현대미술관(MMCA) 덕수궁관의 기획전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는 이런 맥락에서 가치가 남다른 콘텐츠다. 요새 전시장에 인파가 몰리는 현상은 단지 코로나19가 옥죄는 현실이 영 마뜩잖고 답답해서 미술 산책 나온 이들이 많아져서만은 아니다. 난관을 이겨낼 에너지가 절실할 때 문화 예술 콘텐츠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더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음울한 시대를 살아내면서도 오묘한 활기를 띠었던 근대 예술인들의 삶과 창조적 자취를 보노라면 사뭇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문학 부문 기획을 맡았던 조영복 교수는 '근대 문학 예술의 황금시대'라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고 쓴다.

### '다방' 문화와 전위,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조적 어우러짐

"계미는 이름이면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슬픈 찾침이요 또 한 이상은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슬픈 동무이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지금은 영화감독 봉준호의 외조부로 더 잘 알려진 박태원(1909~1986)이 2

년 전 세상을 뜬 친구 이상을 회상하면서 쓴 글의 한 대목이다(1939). 여기에 언급된 '계미'는 이상이 운영했던 다방 중 하나인데, 당시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살롱 문화가 그랬듯, 경성의 다방도 문예인들이 사색을 일삼고 시 낭송과 토론을 하고 미술 전시도 하면서 어우러지는 다목적 '문화 플랫폼'이자 예술 공동체의 성소 역할을 했다. 전시 도록에 실린 김인혜 학예연구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대의 절망을 넘어,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예술가들의 '유토피아적 갈망이 넘실대던 공간이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나누면서 1930~40년대에 활동의 나래를 펴기 시작한 문예인 목록에는 이상과 박태원을 위시해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 이태준 같은 시인과 소설가, 그리고 구본웅, 김용준, 최재덕, 이종섭, 김환기 같은 화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본 등 해외의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는데, 개인적, 집단적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이라는 매개체로 의기투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동 작업을 남겼다. 이는 20세기 초반 '경계를 허물고 혼합 현상이 나타난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어둡고 우울하다고 생각되던

## 근대기 문인과 예술인들의 찬란한 자취들

### 박태원 신문 연재소설 《반년간》의 삽화

동아일보에 1933년 6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연재된 소설 《반년간》의 삽화. 《반년간》과 더불어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작별》 역시 구보 박태원이 직접 글을 쓰고 삽화도 그렸다. 박태원의 삽화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미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지어내는데, 그의 외산자가 영화감독 봉준호리는 점에서 닮은 꼴을 기본하지 않을 수 없다.



1933

### 《삼사문학》 제5호(표지 정현웅)

1934년 9월 창간한 문학 잡지인 《삼사문학(三四文學)》의 주요 문인은 산백수, 이시우, 장현웅 등이었다. '34년에 낳고 해서 '삼사문학'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상(李箱)은 삼사문학의 동인들을 20세기 '의 영웅'이라 칭하고 그들의 청년 정신과 전위성을 높이 샀다. 1934년 12월에 나온 제5호의 표지는 정현웅이 맡았다. 아단문고 제공.



1934

1935

### 김기림, 《가상도》 장정: 이상(李箱)

《중양》 등에 연재한 장시를 모아 창문사에서 1936년 2월호인 김기림의 첫 시집으로 두 번째 일본 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보성고보 동문인 이상이 편집과 장정을 담당하자 기본적으로 2백 부 출판했다. 작중 화자가 세계 지도를 따라 여행을 하는데, 일종의 문명 비판을 의도했다고 한다. 가상도라는 제목이 조금씩 카타도록 한 일체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회화문고 소장.



1936

1938

### 이태준, '이여성 초상'

열두 살 위 형으로 스승과도 같았던 화가이자 언론인, 학자, 독립운동가였던 이태준의 초상을 그린 이태준형제는 유희백(李休白)이다. 이태준은 조선일보 사회부장 시절 문인 기자 김기림과 각별한 연을 쌓고 한국 근대 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계기를 마련한다. 캔버스에 유채, 90.8 X 72.8cm, 개인 소장.



1940년대



### 김용준, 기명절지 10폭 병풍

(근원수필)로 유명한 수필가이자 한국 근대 회단을 대표하는 미술사가이기도 한 김용준의 대표작. 도쿄미술학교에서 사인화를 전공했지만 귀국한 뒤 한국화로 전환했고, 《문장을 비롯한 여러 문예지에 표지화》를 그렸다. 초대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지만 한국전쟁 중 월북했다. 개인 소장.

1942

1943

1948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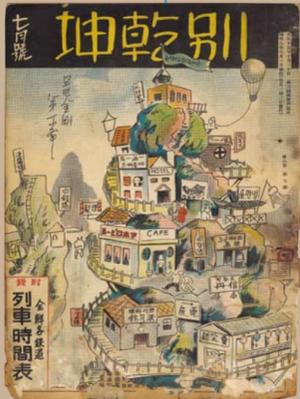
### 전경자, 《아틀리에의 여백》 삽화

《여성(女)》이란 잡지에 연재하던 이태준의 여백이라는 고정문에 쓴 수필에 곁들였던 삽화. 종이에 수묵, 10.7 X 14.8cm, 개인 소장.



1955

1965



### 황정수, '모던 금강 만이천봉!'

1933년 7월, 개척지에서 발행한 대중 잡지 《별건곤》의 표지 그림 (제 8권 제 7호). 수많은 봉우리와 다 영화관, 방앗간, 양구, 맥주집 등 다채로운 상징이 쌓여 높여 높은 산을 이루고 있다. 특히 문인, 예술가가 창작의 영감을 주고받던 카페, 다방이 즐비하다. 절벽 한곳에 마련되어 있는 자살장은 오늘날의 사할로도 닮은 요소다. 근대사지연구소 소장.



### 구본웅, '친구의 초상'

어린 시절 책장을 다쳐 단산에 등이 굽게 된, 그래서 한국의 톨루즈 로트레크라는 별명을 지닌 화가 구본웅이 '절친인 작가 이상을 강렬하게 담은 초상화. 그가 경중하게 큰 이상과 대조적으로 작은 구본웅이 함께 다면 시선을 끌었다고 한다.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Iwa Natsuya and Hwang Nari', 백석글, 장현웅 그림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잡지 《여성》 제3권 제3호(1938. 3)에 실린 백석의 시와 장현웅의 그림. 조선일보 출판부 편집자로 일한 백석과 장현웅의 인연으로 탄생한 수작. 아단문고 제공.



### 최재덕, '한강의 포플러나무'

화가들의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시인 겸 사업자 김광균이 한때 소장했던 작품. 1940년대 근대기 회단에서 가장 촉망받는 화가 중 하나였던 최재덕은 한국전쟁 중 월북하는 바람에 그가 남한에 남긴 작품은 몇 점 되지 않는다.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 이태준, 《돌다리》(장정: 김용준)

원래 미술학도를 꿈꿨던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태준의 주옥같은 책은 대부분 '나성'의 친구 김용준의 장정으로 출판됐고, 이들은 일제강점기 말 문예 잡지 《문장》의 발간에도 한몫했다. 박문서관 제공.



###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생을 마감한 윤동주의 시집. 당대 최고의 시인 정지용이 서문을 썼으며, 1948년 정음사에서 출판됐다. 장정은 당시 정음사 직원인 민화가 이장이 맡았다. 근대사지연구소 소장.



### 이종섭, '사인 구상의 가족'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던 이종섭이 그려낸 최후의 포화계 때를 담은 시 제작중 작품. 오래된 친구이자 신세를 지던 시인 구상이 자전기를 사서 이들을 태워주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종섭의 모습이 담겨 있다. 종이에 연필, 유채, 개인 소장.



1 이수경, 무제(202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를 위해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현대미술가 이수경에게 의뢰해 만든 작품. 가난하고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를 관통하면서도 '본원한' 정신세계를 향유한 예술가들을 보고 공작새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Photo by SY Ko 2 장욱진, 한목, 박고석, 천경자 등 화가들이 작업했던 (현대문학) 표지화를 볼 수 있는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4 전시실.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3 지난해 11월부터 유행까지 전사했던 마아트뮤지엄의 (미타스) 특별전: 제2와 연극에서 선보인 '미카루스(1947), 종이 불꽃' 전 마타스 그리스 출신 편집인(자 친구 테리아드와 손잡고 종이를 잘라 붙이는 '컷아웃' 기법 등으로 만든 책 (책)에 포함된 작품이다. Work by Henri Matisse ©Succession H. Matisse 사진 제공 마아트뮤지엄 4 파비르 르베르디의 시 '일곱들을 위한 심화 시(색인화)', 미타스는 스테판 알라르메의 (시인) 등 많은 문학 작품을 위한 작업을 했다. Photo by SY Ko 5 올해 학교재능교육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 시리즈를 선보인 미술가 윤석림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김이경의 소설 (씨유는 아홉, 역사가 되다). 6 리민 머핀 서울에서 진행 중인 최현의 시(오자 미술가 세실리아 비쿠냐(Cecilia Vicuña)의 개인전 모습. 왼쪽은 비디오 시(poem) 작품 'Truth Fleh Verdad(2020). Photo by OnArt Studio.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비쿠냐는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했는데, 저항적 글쓰기를 했던 차희경의 역작 (비대)(1982)를 바탕으로 음악가 라카르도 갈포와 협업해 완성한 시(오자 시) 소리가 꿈꾼 비(2020) 등을 선보였다.

그 시절에도, 우리의 예술가들은 놀고, 싸우고, 사랑하고, 일하면서 시대를 살아내고, 또 끌어안았던 것이다. “정치적 등화관계가 정신적 등화관계를 이끄는 못하지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암흑이지만, 그걸 뚫고 일어나는 게 문학이고, 예술이니까요.” 조영복 교수는 우리가 근대에 대해 열광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실제로는 문인과 화가가 만나 거대한 ‘팍을 벌었음을 거듭 강조한다.

### 신문과 잡지를 축으로 한 근대의 예술판에서 핀 친린한 꽃

실제로 그 대단한 ‘팍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글의 전문에서 2030세대가 흠뻑 빠진 전시장 풍경으로 묘사했던 ‘지상의 미술관이 아닐까 싶다. 이곳에 전시된 ‘근대의 책들은 그저 문자와 그림으로 이뤄진 인쇄물이 아니라 당시 문예인들이 영혼을 갈아 넣은 ‘예술이었다. 수많은 삽화와 표지화를 그렸던 정현웅은 “서적의 장정, 그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는데, 수려하기 그지없는 화문(畫文), 삽화, 장정 등을 두루 살펴보면 당시의 책들은 ‘인쇄 미술의 미학을 여지없이 담고 있다. 또 그들의 작업은 21세기가 무색하게 다분히 융합적이고 혼종적이었다. 그건 이 시대 문인과 화가가 이미지와 활자를 동시에 ‘예정했고 그것들을 함께 창의적으로 다룰 줄 알았으며,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따로, 또 같이 작업을 해나간 덕분이다. 예컨대 시인 이상 이 보성고보 동문이기도 했던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의 편집과 장정을 도맡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더불어 신문소설의 삽화와 신문사 자매지로 발간된 잡지의 화문 역시 눈여겨볼 대상이다. 20세기 초반 지구상에는 문자와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조선 땅에 읽을 거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인이 글을 쓰고 삽화가가 그림을 그린 소설을 게재하고 자매지로 대중·문예 잡지를 내는 신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고 파급력도 컸다. 매체 종사자의 면면 역시 화려했다(주로 지식인층이었던 독자의 수준 역시 높았다). 유행을 다녀온 지식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극히 좁았던 터라 일간지와 잡지에서 일한 경우가 많았고, 덕분에 이른바 ‘문인 기자’의 활약상이 돋보였다(이여성과 김기림, 백석과 정현웅의 만남이 신문사가 맺어준 대표적인 인연으로 꼽힌다). 시인 백석



이 조선일보에서 파내던 <여성>의 편집자로 일했을 때 이 잡지는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 그가 동료였던 정현웅과 함께 쓰고 그린 ‘나와 너’와 ‘희’와 ‘희’ 당나귀는 둘의 환상적인 ‘궁합’을 잘 드러내는 수작이다. 사실 ‘지상의 미술관’ 전시장에서 근사한 장정을 입은 근대 서적뿐 아니라 화문이나 신문소설의 삽화가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관람객의 진지한 ‘감상’을 이끌어내는 풍경은 전시를 기획한 이들에게도 다소 놀랍고 흐뭇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벽에 내거는 ‘그림’ 없이 전부 문헌으로만 채우던 중이에 새겨진 문자를 기피하는 ‘이미지 세대’를 비롯해 도대체 누가 보러 오겠냐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찬란했던 시기의 ‘책 문화’를 보여주고 자



3 책우는 여자들, 여사가 된다. 서울을 떠나는 여학생들이던 이경희와 정현웅의 만남이 신문사가 맺어준 대표적인 인연으로 꼽힌다. 시인 백석



가 그런 고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조 교수의 감탄에 김 연구관도 맞장구를 쳤다. 아마 그건 ‘자매 예술’이라고도 하는 문화과 미술, 다시 말해 글과 그림이 제대로 조화를 이룬 덕분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는 어이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그러모으고 관련 미술 작품들을 애써 찾아내 ‘이커이빙’ 작업을 완성한 두 여성의 조우도 단단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방대한 전시의 밑작업을 함께 이끈 이들 중 한 사람이 살짝 수줍게 내뱉는 말처럼 이던기에는 ‘김인혜와 조영복의 만남’이라는 작은 주석을 달아도 좋을 듯하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 고리가 되어 문화 예술도 꽃을 피우고 번주도 하는 법’이니 말이다. 글 고성연



4 진실을 일깨워라. '미타스'를 펴낸 미타스 출판사



# joy of colors <게르하르트 리히터: 4900가지 색채>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이름만 들어도 귀가 쫑긋할 만큼 들쭉는 명성을 지닌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시’ 형식으로 접하기 쉽지 않았던 독일 출신의 거장 리히터가 빛어내는 ‘색의 연금술이 서울 하늘을 수놓고 있다.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오는 7월 18일까지 열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 4900가지 색채>전. 지친 영혼에 즐거운 심포를 선사하는 이 전시는 ‘작지만 큰’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충고가 높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새하얀 벽면을 감싸는 알록달록한 그림 너 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크기가 다를 뿐 모양새는 비슷하다. 다채로운 색상의 정사각형 색종이, 혹은 장난감 블록을 이어 붙인 듯한 이 추상 작업들은 ‘4900 FARBEN(4900가지 색채)’이라고 불리는 한 세트의 작품이다. 별다른 정보 없이 방문했다면 ‘얼마 아예 다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아니면 ‘덜똥히 들여다보면 매직 아이처럼 뭔가 더 보이려나?’라는 호기심이 솟을지도. 동시대 최고의 현대미술가로 작품 한 점에 수백억원씩 한다는 ‘비싼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아닌가. 자본주의가 낳은 럭셔리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현대미술을 둘러싼 작품가 논쟁은 접어두고, 리히터의 작업은 어째서 그리도 독보적이라 여겨지는 걸까? 단순히 넘치는 이번 전시에서 그 답이 살짝 엿보인다.

### ‘무작위를 추구하는 키멜레온 같은 끝없는 실현

1932년 옛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리히터는 전쟁으로 쫓겨나야 된 고향의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 선전용 벽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제한된 자료와 예술적 영감의 한계를 느끼던 그는 1961년 서독으로 향했는데, 불과 몇 달 뒤 베를린장벽이 세워졌다. 당시 쟁쟁한 대가와 인제가 모여 있던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앵포르멜, 플럭서스, 팝아트 등 새 흐름을 접하면서 그 역시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하지만 정치든 예술이든 이데올로기를 혐오했던 만큼 특정 사조나 경향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잡지사 가족의 사진 이미지를 차용해 윤곽을 흐리는 기법으로 마치 초점이 어그러진 사진처럼 보이지만 화려한 느낌을 주는 ‘포토 페인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리히터는 사진과 회화, 추상과 구상, 채색과 단색의 ‘경계를 넘나들며 끝없이 새로운 언어를 선보였다. 그리고 방대하고 독창적인 작업 세계로 평단과 컬렉터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 LVMH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화장이 애정을 쏟아부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도 그의 커리어 50여 년을 아우르는 작품 32점을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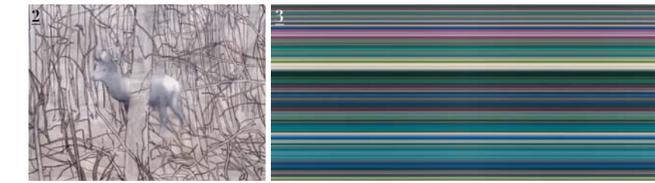
### 위계 없는 색들의 무작위 조합이 선사하는 기쁨

그중 올봄 서울로 날들이 온 ‘4900가지 색채’(2007)는 모두 11가지 버전이 있다. 알투디본드 소제에 에나멜 스프레이로 채색한 작은 사각형(9.7X9.7cm)을 가로세로 5개씩 붙인 25개가 기본 단위의 패널인데, 총 1백96개 패널이 있기에 4900(196X25)개 컬러 스퀘어로 구성된 작품이다(색상은 중복된다). 바로 이 패널들이 ‘판(plate)’을 이루는 조합 방식에 따라 버전이 달라진다(모든 패널이 따로 떨어져 1백96개 판이 되는 ‘버전 I’부터 모든 패널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판을 이루는 ‘버전 XI’까지). 서울 전시의 ‘픽은 4개의 판으로 된 아홉 번째 버전이다. 가장 넓은 벽면에 크기가 같은 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간 크기의 판, 그리고 외부의 빛이 들어오는 테라스와 맞닿은 벽면에는 제일 작은 판이 자리한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모든 색은 독자적이며 대체 불가능하다고 한다. 리히터도 위계 없이 평등한 색의 개별성에 주목했다. 4900의 색 배열도 작가의 개입 없이 컴퓨터를 통해 임의적으

로 이루어졌는데, 원류를 따져보면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인트 가게에서 산업용 페인트 색상표를 보고 ‘이미 완전하다고 감탄한 리히터는 이를 그대로 캔버스에 옮겼고, 이 처럼 주관성을 탈피하며 색을 실험하는 ‘컬러 차트’ 작업을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한 쾰른의 상징인 쾰른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의뢰받고는 다시금 이 차트를 떠올린다. 남쪽 측랑의 훼손된 창문을 재디자인하는 작업이었는데, 상당은 고심 끝에 현대적인 패턴을 입히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중세의 창문에 실제로 쓰인 72가지 색상을 뽑아내 1만1천5백 장의 수공예 유리로 만들어진 컴퓨터로 임의 조합한 ‘돔렌스터(Domfenster)’(2007) 작업은 그렇게 탄생했다. 이에 영감받은 리히터는 ‘4900가지 색채’도 동시에 제작했고, 이 시리즈는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의 전시 공간에 어울리는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다.

사실 배경지식은 있어도 된다. 단, 10초라도 평정심을 갖고 가만히 응시하는 감상법을 추천한다. 무한 확장하는 색의 스펙트럼이 선사하는 밝고 역동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필자에게는 어느 순간 색들이 춤을 추더니 드레스덴에서 본 리히터의 경이로운 추상 회화가 아른거리는 듯했다. 다름 아닌, 색의 환희였다. 글 고성연

1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오는 7월 18일까지 열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 4900가지 색채>전 전시장 풍경. 2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리히터 소장품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든 구성화인 1963년 작 'Hirsch(사슴)'. Oil on canvas, 150 X 20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Fondation Louis Vuitton. Photo credits: © Fondation Louis Vuitton / Martin Argyroglo 3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리히터 소장품 STRP(921-5)(2011). 자사의 추상 회화 속 색채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출해 길게 늘렸다. Digital print on paper mounted between aluminum and perspex(disc), 200 X 44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Fondation Louis Vuitton. Photo credits: © Primae / Louis Bourjae 4 리히터는 2007년 쾰른 대성당의 남쪽 측랑 스테인드글라스를 재-디자인 작업을 선보였는데, 동시에 회화 작품 '4900가지 색채'도 내놓았다. 두 작업은 공통적으로 1960년대 그가 산업용 페인트 색상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컬러 차트' 시리즈에 뿌리를 두고 있다.



# woman in gold

유려한 곡선과 매혹적인 골드빛이 그리는  
로맨틱 타임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쇼파드 클라식 21MM** 기념비적인 여성의 손목을 강조하기에 이상적인 지름 21mm 케이스로 선보이는 제품. 베젤에는 2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면모를 드러낸다. 유기적으로 연결한 링크 브레이슬릿이 손목을 부드럽게 감싼다. 2천4백61만원. 문의 02-6905-3390 **IWC 다빈치 오토매틱 36** 골드 핸즈와 인덱스, 블루 세컨드 핸드가 이루는 앙상블이 모던하고 강렬한 개성을 내뿜는다. 화이트 다이얼 위 6시 방향에 작은 라운드 날짜창이 자리하며, 반구형 크라운이 미학적 완성도를 높인다. 칼리버 35111을 장착했으며, 수심 약 3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3중 버퍼블라이 버클이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한다. 4천9백20만원. 문의 1670-7363 **에거 르몽트르 랭데부 나잇 & 데이 스몰** 지름 29mm의 감각적인 라운드 케이스와 영롱한 빛을 띠는 다이아몬드 베젤이 우아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칼리버 967A를 탑재했으며, 6시 방향에 낮과 밤 인디케이터가 자리한다. 4천7백만원대. 문의 02-6905-3998 **카르띠에 마이콤 드 카르띠에 워치** 유각형 다이얼과 볼륨감 넘치는 체인 링크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멋스러운 타임피스. 태양 광선 7번으로 마감한 관능적인 다이얼에 검 모양 블루 핸드와 고전적인 로마자 인덱스 등 매종 특유의 요소로 미감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피아제 인스트림리 레이다 워치** 자체 제작 쿼츠 무브먼트 56P를 탑재하고, 1960년대를 풍미한 클래식 스타일을 더한 품격 있는 워치. '스케일 장식을 인그 레이팅한 브레이슬릿과 다이얼이 하나의 주얼리가 되어 관능적인 매력을 뽐낸다. 감각적인 타원 베젤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약 8천1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8928** 칠스틴 우아하게 호드러지는 골드 브레이슬릿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오벌형 케이스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 다이얼에 로마자 아워 마커를 세팅했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586/1을 장착했다. 8천2백만원대. 문의 02-3149-9559 **에디터 이주이**

# modern pearl

우아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컨템퍼러리 진주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스타틴 헬스터 아스트로 볼 네크리스** 옐로 골드로 정교하게 조각한 시지저의 모티브 아스트로 볼이 진주를 감싸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펜던트는 골드 체인에 매달아 네크리스 펜던트로 활용하거나 이어링으로도 착용 가능하다. 1백60만원. 문의 02-2231-1592 **쇼페 조세핀 앙그레 드 이어링** 꺾음을 타고 내려오는 섬세한 앙그레 드 디자인에서 기쁨과 우아함이 느껴진다.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제품. 5백90만원. 문의 02-3479-1597 **타사키 밸런스 유나이트 링** 동양의 음양 개념을 볼륨감 있는 주얼리로 표현했다. 남양 흑진주와 백진주를 접합한 후 중앙에 옐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빛과 품위를 더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3461-5558 **타사키 오로라 이어링** 비드속 오로라 광채를 표현한 제품. 깊게 놓여진 진주 드롭 이어링을 따라 다이아몬드와 블루 사파이어가 환상적인 빛을 발한다. 7천만원대. **피아제 로즈 펜던트 네크리스** 43개의 발광인덱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로즈 펜던트에 이코아 진주 드롭 장식을 비대칭으로 세팅해 비정형적이고 신선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1천60만원대. 문의 02-3479-1802 **프레드 베 데 앙쥬 링** 천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화이트 바르크 알수 진주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이어링. 다이아몬드를 더한 옐로 골드를 교차해 조형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4백93만원. 문의 02-514-3721 **에디터 이주이**

(왼쪽) 버블 부클레 소재 드레스 3백98만15천원, 버블 부클레 소재 센들 3백77만원, 실버 후프 이어링 가격 미정, 버블 부클레 소재 트라이앵글 손잡이 백 4백82만원 모두 **보태가 배네다**, (오른쪽) 버블 부클레 소재 재킷 3백7만15천원, 버블 부클레 소재 톱 1백48만원, 버블 부클레 소재 팬츠 2백25만15천원, 버블 부클레 소재 슬라이드 1백964만원, 골드 후프 이어링 가격 미정, 버블 부클레 소재 트라이앵글 손잡이 백 4백82만원 모두 **보태가 배네다**.



# DOUBLE PLAY

같은 듯 다른 느낌.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는 건 언제나 즐겁다.  
이번 시즌 새로운 백들과 함께한 트윈 컷.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왼쪽) 바시 쇼트 슬리브 레더 톱 9백52만원, 스트라이프 슬리브리스 톱 가격 미정, 스테이 트먼트 슬록건 버뮤다 쇼츠 3백39만원, 블랙 컬러 메탈릭 모노그램 장식의 크루저 PM 백 9백71만원 모두 **루이 비통**, (오른쪽) 리워크드 스트라이프 라빈 크롭트 톱 4백33만원, 스트라이프 크롭트 후디 가격 미정, 스포티 스테이 트먼트 버뮤다 쇼츠 3백39만원, 화이트 컬러 메탈릭 모노그램 장식의 크루저 PM 백 가격 미정 모두 **루이 비통**.



(왼쪽) 도트 무늬의 타프타 드레스 3백14만원,  
 도트 무늬의 타프타 펜츠 3백32만원,  
 블랙 레더 & 오렌지 나일론 슬랑백 힐 가격 미정,  
 오렌지 브리사드 가죽 핸드백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오른쪽) 옐로 자수 장식의 튀세스 드레스 4백31만원,  
 블랙 레더 & 옐로 나일론 슬랑백 힐 가격 미정,  
 화이트 브리사드 가죽 핸드백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왼쪽) 오렌지 컬러 실크 브라 톱,  
 블랙 컬러 라틴 정프수트, 캔버스 소재의  
 민트 컬러 에르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오렌지 컬러 실크 보디슈트,  
 블랙 컬러 라틴 정프수트, 레더 소재의  
 레드 컬러 에르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 옐로 프린트 실크 드레스 3백만원대,  
 라이트 블루 레이스 펌프스 1백만원대, 오렌지 컬러  
 파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5백만원대 모두 **렌다**.  
 (오른쪽) 옐로 프린트 실크 드레스 3백만원대,  
 화이트 메시 저지름 가격 미정, 옐로 라벤쵸 가격  
 미정, 화이트 레이스 펌프스 1백만원대, 베이지 컬러  
 파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5백만원대 모두 **렌다**.



(왼쪽) 블루 컬러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4백20만원,  
 민트 컬러 저지 1961  
 스물 호보 백 2백86만원  
 모두 **구찌**. (오른쪽) 옐로 컬러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4백80만원,  
 화이트 컬러 저지 1961 스물  
 호보 백 2백86만원 모두 **구찌**.

(왼쪽) 프린트 모슬린 소재 드레스, 골드 메달 소재 이어링, 네크라스, 메릴라이즈드 링 스킨 소재 사슬 19 백 모두 가격 미정 사설.  
 (오른쪽) 프린트 모슬린 소재 드레스, 실버 메달 소재 이어링, 네크라스, 사파니그레인 카프 스킨 소재 숄더백 모두 가격 미정 사설.



(왼쪽) 블랙 & 화이트 스트라이프 드레스 79만원 사카이, 핑크 웨지 물 1백2만원 로저 비비에, 블랙 컬러 시에라 플랩 숄더백 35만8천원 조이 그라이슨. (오른쪽) 블랙 편향 드레스 가격 미정 사카이, 화이트 웨지 물 1백 23만원 로저 비비에, 아이브리 컬러 시에라 플랩 숄더백 35만8천원 조이 그라이슨.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서현, 서윤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프라다 02-3218-5331  
 보테가 베네토 02-3438-7682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200-2700  
 란디 02-514-0652  
 구찌 02-3452-1921  
 사카이 02-541-7510  
 루이 비통 02-3432-1854  
 조이 그라이슨 080-202-200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shoe time

봄바람을 불어넣은 듯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상으로 물든 2021 S/S 슈즈 트렌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 올스핏 디테일로 아이코닉한 면모를 살린 핑크빛 미드 힐 슬링백 펌프스 1백10만원 구찌, 모네의 작품과도 같이 호드라진 타이다이 패턴이 인상적인 패브릭 소재 플랫 가격 미정 샤넬, 사랑스러운 리본 디테일의 앙가주 바바 발레리나 80만원대 살비토레 페라기오, 남다른 앙코와 두툼한 플랫폼의 대비가 독특한 퍼피 펌프스 1백만원대 루이 비통, 1900년대 스타일에서 착안한 포인티드 토와 스포티한 스타일의 나일론 개버딘 슬링백 펌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클래식한 축구화 스타일의 디자인이 특징인 페이퍼트 가죽 슬림은 미드 힐 스니커즈 1백20만원대 미우미우, 마이크로 메시 소재와 생생한 이주레 자수 디테일이 조화로운 콜리브리 슬링백 1백만원대 렌디, 에디터 이주이

구찌 02-3452-1921 샤넬 080-200-2700, chanel.com 렌디 02-514-0652  
 살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218-5331 미우미우 02-3218-5331

이니스테이트 광고부

2023년 상반기 입주예정

www.지엘메트로시티.com



**빌딩 속 하이웨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경험하다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대한민국 첨단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이 될 향동에  
 빌딩 속을 달리는 직진형 드라이브인을 갖춘 GL메트로시티가 옵니다.

**GL 메트로 시티** **향동**



시행 **디앤씨덕은(주)** 시공 **한화건설**

현장 :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58리 / 건축면적 : 14,660.67㎡ / 연면적 : 194,813.00㎡  
 용적률 : 379.18% / 건폐율 : 59.98% / 지하 4층~지상 14층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1588-4699**

# Code Trench

냉만이 갖든 계절, 봄. 트렌치코트가 빛을 발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계절이 있을까?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가 담긴 아름답고 멋진 트렌치코트의 세계.

기후가 온화해지는 이맘때면 자연스럽게 손길이 가는 트렌치코트. 완벽히 재단된 클래식한 트렌치코트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멋지지만 디자이너들은 매 시즌 트렌치코트 영역 확장에 나선다. 이번 시즌 컬렉션을 들여다보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은 다소 약세를 보였고, 의복의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록다운으로 인한 작업 환경 변화에 직면해서일까? 근거리에서도 편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원마일 웨어가 대두된 점이 크게 한몫한 듯하다. 조거 팬츠와 연출하거나 셔츠와 데님 팬츠에 걸치기만 해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실용성에 집중했다. 이는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컴포트 트렌드와 맞닿는 점이기도. 반면 컨템퍼러리 요소를 더해 변주를 시도한 디자이너들도 있다. 루이 비통과 버버리는 거의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길이를 길게 늘려 코트의 비율을 과장하기도 했고, 에르메스와 생 로랑은 가죽 소재에 긴장감 있는 실루엣을 더해 드레시한 룩에도 잘 어울리도록 했다. 에디터 **이유미**



SAINT LAURENT

**Leather Chic**  
화사한 개성이 돌아왔음에도 가죽 소재의 활력이 두드러진다. 가죽 자체의 강렬한 매력과 구조적인 형태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 에르메스 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레이어드는 최대한 자제하고, 간결한 미니 니트 드레스와 매치해 근사한 스타일을 완성해볼 것.

이비개일 밀라티리 그린 스웨이드 가죽 트렌치코트 2백78만원 **골든스**.



스웨이드 숄더가죽 코트 1천9백만원대 **에르메스**.



둔지네스 롱코트 1백92만원 1 몽클레르 JW 앤더슨.

테크니컬 코트 개버린 트렌치 코트 3백59만원 **버버리**.

MICHAEL KORS COLLECTION

**Minimal Strategy**  
트렌치코트 특유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테일을 달아내 동시대적인 클래식식을 그리는 디자인은 마이클 코어스와 1 몽클레르 JW 앤더슨 컬렉션에서 엿볼 수 있다. 사프한 솔더 라인에 간결한 싱글 버튼으로 균형을 잡고, 부드러운 코튼 소재로 완성한 싹싹하고 근사한 스타일을 제시한다.

**Neutral Coloring**  
클래식한 베이지 컬러 트렌치코트를 이미 소유했다면 컬러를 기민한 '색' 다른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중성적인 컬러군 안에서 매치하기 쉬운 실용적인 미드나잇 블루와 다크 그레이, 카키 색조가 주를 이룬 실버토네 페라미오와 켈린-쇼를 참조해보자.



포텐테 올라운드 트렌치코트 1백68만원 **워렌트 맥스마라**.



스팅 트렌치코트 99만원 **잉크**.



LOUIS VUITTON



MAX MARA

**Classic Forever**  
맥스마라나 나나 리치, 빅토리아 베컴 관웨이에 오른 트렌치코트는 생애 첫 트렌치코트로 이미 소유했을 법한 클래식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견장과 더블 버튼, 라펠이 달린 칼라로 귀결되는 베이시한 디자인에 기반하지만 타이트한 사이즈부터 오버사이즈에 이르는 실루엣, 나일론부터 맥스에 이르는 기장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오버사이즈 벨티드 더블 코트 1백97만원 **마리나**.



로코 패치 개버린 트렌치코트 3백만원대 **베트경 by 매카스**.



베이시-멀티컬러 GG 캔버스 코트 가격 미정 **구찌**.



디테일을 워머 슬리브리스 트렌치코트 3백19만원 **버버리**.

**Patch Treat**  
버버리와 구찌 컬렉션에서는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개성 있는 트렌치코트를 만날 수 있다. 코트의 기본 구성 요소에 아이코닉한 소재를 덧대 구조를 변형하는 시도가. 불규칙한 주름을 이루는 플리세나 데님같이 일상에서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 두 가지 패턴으로 과하지 않게 절충한 것이 포인트다.

**Athletic Touch**  
스트링 장식이나 후디 디테일, 린헴 같은 애슬레틱 요소와 결합한 스타일은 프리디와 맥스마라 컬렉션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실용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기본 좋은 촉감을 전하는 폴 액인 코트가 주를 이루고, 상세한 위상을 적용한 샌드와 스톤 색조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ALEXANDER McQUEEN

**Unique Ways**  
로아베나 일렉산더 맥퀸 컬렉션은 트렌치코트 트렌드를 한층 풍성하고 흥감 있게 만들었다. 패션의 창의적인 면도 놓치지 않고 싶지 않은 이들을 고려해 대담한 볼륨감과 디테일을 다한 트렌치코트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실용성에 기반한 친숙한 아이템 사이에서 전위적인 아름다움을 다짐을 일깨웠다.



레이어드 베스트 트렌치코트 34만원 **드미아**.



캔버스 후드 레인코트 4백50만원대 **프리다**.



BURBERRY

카사디 트렌치코트 2백73만원 1 몽클레르 JW 앤더슨.

플리츠 울 블렌드 트렌치코트 1백만원대 **A.W.A.K.E** **모드 by 매카스**.

# editor's Pick

최적의 뷰티 컨디션을 위한 필수 아이템 13,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베 아센트릭 립밤** 알고 명도 높은 코랄 핑크가 개연의 일출 컬러에 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인다. 복숭아 씨 오일을 함유해 고보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습하고 건조하기를 반복하는 미스크 속 강한 일출에 딱이다. 비건 제품이라 더 마음에 와 닿는다. 3.4g 3233천원. 문의 1544-5114  
*\_by 에디터 장리운*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엔비 스킨프링 립스틱 레베카로스 로즈** 밀린 장미에서 영감을 얻은 사랑스러운 핑크빛을 담아 한정으로 선보인다. 하우스 특유의 라이오틀라이징 모이스처 콤플렉스를 담아 보습 효과도 상당하다. 부드럽고 선명한 발색력, 지속력을 갖춘 것은 물론 일출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부여한다. 3.5g 4222천원. 문의 02-6871-3212 *\_by 에디터 이주이*

**베이지크 클래식 핸드 앤 네일 크림** 살로몬, 인공 향료, 인공 색소, 파라벤 등 유해 성분을 배제한 비건 핸드크림이다. 자자극 살로몬 프리 포뮬라라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 크림, 끈적임 없는 보습감을 남긴다. 피부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시아버타와 판테놀도 다뤘다. 세이지와 만리진, 베르가모트가 어우러진 은은한 향기가 일출에 생기를 더해준다. 42ml 2222천원. 문의 070-8787-6333  
*\_by 에디터 이주이*

**로이비 리얼 다마스크 로즈 하이드레이팅 토너** 집중 보습 케어가 필요했던 3월 어느 날 화장실에 들락 문혀 양 볼과 이마, 턱에 얹어두니 마음까지 편안해졌다. 인도산 다마스쿠즈 장미 꽃잎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흔들어 사용하면 향이 더 은은하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다. 180ml 4222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장리운*

**아벤트 이드라스트 에센스** 미스트 향이 강하지 않고 유분기가 적은 가벼운 질감의 미스트를 찾고 있던 중 만난 제품이다. 세안 후 스킨 대신 사용하는데, 해일루손과 비타민 B·E, 그리고 아벤트-온천수를 주성분으로 한 액체가 인가 분사되다 베르가모트 스메어를 더욱 선뜻하게 날려준다.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에 사용해도 진정 및 수분 공급 효과가 뛰어나 부부 또는 커플이 함께 사용해도 좋다. 100ml 2222천원. 문의 1899-4802 *\_by 에디터 장리운*

**그라프 레세다 라 코나 V** 베르가모트와 네롤리 블러싱이 어우러진 동양적인 꽃향기가 주를 이루고, 타기 로즈와 일광향료로 이따지는 미들 노트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 파출리와 섀플우드, 바닐라 오가 더 부드러운 향을 남기며 따뜻한 기운을 전한다. 매종의 아이젠버타를 상징하는 에펠드 컷 크리스탈 보틀에 담았다. 100ml 4122천원. 문의 080-800-8809 *\_by 에디터 이주이*

**아일랜드스 아치 브로우 마이크로 스킨프링 펜슬 #다크 브루워** 지름이 고작 1.4mm인 마이크로 펜슬이 특징이다. 한 줄 한 줄 섬세하게 그릴 수 있어 보편 시시 아이 피부를 매우들 자극스러운 눈썹 결 연출을 용이하다. 콘 브러를 장착한 듀얼 향티로 눈썹 결 정리와 피그먼트 블렌딩에도 편하다. 0.04g 3217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이주이*

**데코르테 AQ 일리오라티 인텐시브 리페어-워터링 데이 크림 SPF 10 / PA ++** 수면, 식생활, 스킨케어 루틴 등 그동안 어떤 사람도 보충받지 못한 피부로 드러나는 40대, 리프팅 능력이 실패하고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는 이에게 적합한 텍스처로 자외선 차단 기능과 주름 개선 기능까지 갖췄다.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이 타임 전용 크림으로 요즘같이 향사가 심한 날씨에 안심할 수 있다. 50g 4322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장리운*

**티르티르 세라믹 마사지 스킨케어** 시 오일 또는 크림 도포 후 마사지 도구를 몇 번만 쓱쓱 얼굴을 터치해줘도 오진 내내 또는 하루 종일 입이 달리는 것을 경감했다.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기에 나선 에디터의 눈에 띈 이 제품은 천연 백도를 세 번 구워 내면 100% 도자기 질사 마사지 도구다. 신체 굴곡에 따른 어긋간 지조를 하-에 담이 얼굴부터 헤어, 보디 등 모든 부위를 터치할 수 있다. 마사지와 피우치 각 1EA 4만 2천원. 문의 1522-0847 *\_by 에디터 장리운*

**조 말론 런던 넥타린 블로섬 앤 허니 비디 미스트** 에디터의 건성 피부는 얼굴보다 몸에서 먼저 드러나는데, 정장이나 등, 허벅지 뒤쪽 등이 가렵기 시작하면 몸이 비싸비싸 마르고 있다는 신호다. 피부더 항을 가미한 이 비디 미스트는 손이 달기 힘든 곳까지 착착 뿌려 수분과 영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향조차 달콤해 모성 샤워 후 7분 후에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준다. 100ml 8242천원. 문의 02-3440-2750 *\_by 에디터 장리운*

**바이레도 프리즈의 아이세도우 팔레트 18컬러** 이시카야 프라자와 협업해 선보이는 컬러 팔레트. 보기만 해도 환상적인 유니크한 컬러 구성이 돋보인다. 스킨클링 코퍼 레드를 비롯해 시머 라일락, 소프트 매트 네이비 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18가지 색상과 텍스처로 선보인다. 부드러운 피우더 입자 덕분에 메이크업과 블렌딩도 손쉽다. 30g 14225천원. 문의 02-3479-1688 *\_by 에디터 이주이*

**라이크와이즈 비 세이프 선 스틱** 기준 비 세이프 선 젤로 자외선 차단 제품 중 이미 두 번은 신문을 얻은 라이크와이즈가 선보이는 새로운 선 스틱이다. 속속 피 바르기만 해도 SPF 50 + 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부여한다. 미투리감도 자극 없이 보습한다. 외출 시마다 덧바르기도 쉽고, 손에 직접 닿지 않아 위생적이다. 18g 2222천원. 문의 02-3677-9703 *\_by 에디터 이주이*

**에르메스 로즈 에르메스 샹키 블러쉬 #19** 로즈 이브리코 컬러가 피부에 볼을 건듯 자연스러운 생기를 선사한다. 미세하고 부드러운 피우더 타입으로, 피부에 밀착해 건조함 없이 마무리된다. 피우더 팬을 교체해 지속적 사용도 가능하다. 6g 9222천원. 문의 02-310-5174 *\_by 에디터 이주이*



# SHOWROOM

## FASHION

**토즈 뉴 샌들** 2021 S/S 시즌에 선보이는 새로운 플랫폼 힐 샌들은 경량 가죽 솔과 와이드한 세미 스퀘어드 토로 착용감을 끌어올렸다. 투명한 플렉시글라스 소재의 힐로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를 더했는데, 부드럽고 편안한 곡선이 시크하다. 울어름 어떤 차림에나 매치하기 쉬운 샌들이다. 문의 02-3438-6008

**살바토레 페라카모 실크 프로젝트** 풍부한 아카이브를 통해 특별한 창의력과 고도의 장인 정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실크프린트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에서는 살바토레 페라카모의 상징적인 라안인 실크 액세서리, 스카프, 넥타이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0-7854

**파비아나 필리피 2021 S/S 컬렉션** 최고급 소재와 편안한 디자인으로 기쁨 있는 스타일을 제안하는 파비아나 필리피. 이번 시즌 주목할 아이템은 베이지 컬러의 쇼트 재킷과 베스트다. 재킷은 라빈과 비스코스를 혼합해 흐르는 듯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며, 짧은 길로 트렌디한 느낌을 준다. 베스트는 사선 무늬 오븐워크 패턴으로 셔머 시즌 단독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문의 02-6905-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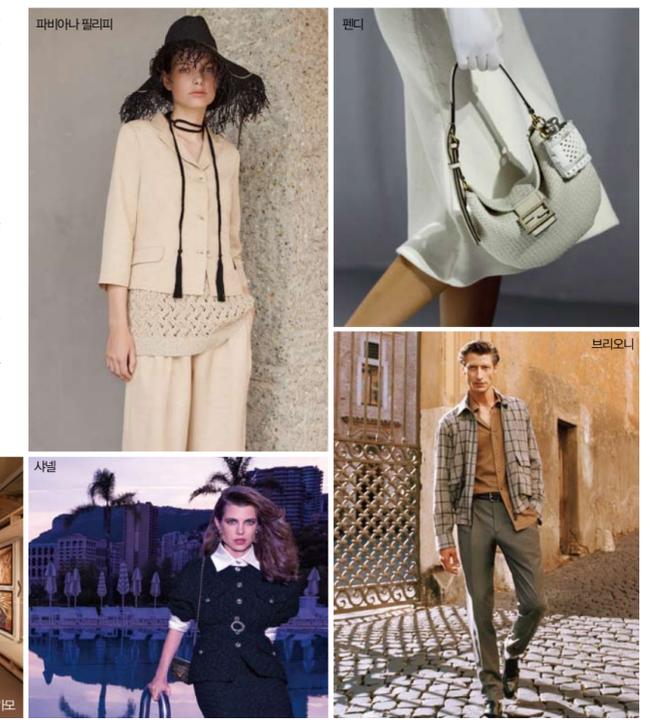
**다을 뷰티 피우치** 최초로 47치 사이즈로 출시되는 뷰티 피우치는 아이코닉 다을 코퍼 백에서 영감을 받았다. 세련된 브라운과 블랙 컬러, 또는 여름 감성을 담은 라즈베리 핑크와 오션 블루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브리오니 라이트 체크** 집업 블루투스 출시 일교차가 심

한 환절기 스타일링을 완성해줄 감각적인 라이트 체크 집업 블루투스를 출시한다. 패치 포켓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살리고 은은한 광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착용감과 활동성까지 고려해 매우 실용적이다. 문의 02-3479-6483

**팬디 크루아상 백** 아이코닉한 바게트 백을 재해석했다. 더욱 부드럽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스트랩을 조절해 토트나 솔더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블랙 카프 레더, 화이트 코트, 내추럴 우븐 스트로 소재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4-0652

**사넬 2021 S/S 캠페인** 사넬의 오랜 친구인 샬롯 카시라가 사넬의 얼굴로 발탁되어 감각스러운 재회의 순간을 맞이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나코를 배경으로 진행되었으며 샬롯 카시라가는 신비로운 모나코에서 현실과 꿈이 만나는 듯한 이번 컬렉션의 콘셉트를 잘 표현했다. 레드 카펫 위에서 타자는 플래시 같은 버지니 비아리의 컬렉션도 눈여겨보자. 문의 080-200-2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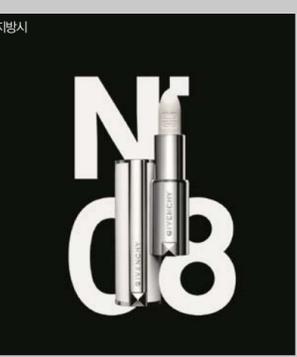


## BEAUTY



**바이레도 프리즈의 아이세도우 팔레트** 유 유러피안 럭셔리 브랜드 바이레도가 메이크업 라인의 신제품 프리즈의 아이세도우 팔레트 18컬러를 출시한다. 화려한 스킨클링 코퍼 레드부터 디프한 소프트 매트 네이비까지 다채로운 레인보 컬러를 담았다. 문의 02-3479-1688

**설화수 윤조에센스** 199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설화



수의 인티에이징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윤조에센스가 대용량으로 한정 출시된다. 단순히 피부 결뿐만 아니라 장벽을 케어함으로써 보습력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보호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체계적인 멀티 케어로 신개념 인티에이징 해법을 제시한다. 문의 080-023-5454

**지침시 르루즈방** 호호추출물과 타히타 블랙 진주, 이드멜라 플라워 추출물을 포함한 풍부한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24시간 완벽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랩밤을 새롭게 출시했다. 레드 케이스와 편안한 질감으로 쿠티르 감각도 더했다. 문의 080-801-9500

## LIFESTYLE



**르노 C40 리처지** 전동화를 통한 무공해 시대를 상징하는 차세대 순수 전기차 볼보 C40 리처지를 공개했다. SUV의 모든 장점을 갖추면서도 차체가 낮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브랜드 최초로 전기차로만 출시했는데, 40분 만에 약 80%까지 충전 가능한 배터리로 구동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20km다. 르노는 2030년까지 모든 판매 차종을 순수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의 1588-1577

## JEWEL & WATCH

**파이에 폴로 워치** 기존 폴로 워치의 정제성인 혁신적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 디자인을 적용하고 섬세하게 세공한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에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하는 혁신을 시도한, 새로운 세대를 표방하는 상징적인 워치.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로 마감해 개성과 매력을 배가했다. 문의 02-3479-1802

**스와로브스키 비상하는 스와** 탄생 1백26주년을 맞이한 스와로브스키가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바나 엔겔베르트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던 크



로니 하이드르케스트 하이드론

리얼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전개할 예정이다. 브랜드 컬렉션을 대변하는 백조 실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문의 02-6402-1725

**까르띠에 팬드 드 까르띠에** 심플한 매력의 팬드 드 까르띠에 컬렉션은 팬다가 본래 가지고 있는 야생적 카리스마를 고수하면서 사랑스럽고 장난스러운 팔색조 같은 매력을 더했다. 한층 간결하고 슬림한 디자인과 함께 데일리 주얼리로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한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했다. 문의 1566-7277

**로니 하이드르케스트** 하이드론 퀘스트 타임피스 는 전통적인 다이빙 워치다. 블루, 그레이, 블랙에 그린 컬러 모델을 추가해 완벽한 컬렉션을 완성했다. 지름 41mm의 케이스는 다이얼과 동일한 색조의 그린 라버 스텐라과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호환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이지 체인지 시스템으로 별도의 도구 없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문의 02-3479-1940



A black and white fashion advertisement for Chanel. The image features a woman from the chest up, wearing a dark, textured tweed jacket with large buttons. She is also wearing a pearl necklace with a central medallion, large pearl earrings, and a bracelet. Her hands are clasped near her neck. She is holding a small, quilted Chanel handbag with a chain strap. The word "CHANEL" is printed in large, white, bold, sans-serif capital letters across the center of the image. The background is a blurred, natural setting.

CHANEL